

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

[Weekly: 2026/01/12~2026/01/18]

2026.01.19

[로봇] 보스턴다이나믹스의 IPO 기대감

- 보스턴다이나믹스의 IPO 추진. HD현대로보도 주관사 선정 완료. 베어링 강구 제2 엔비알 모션도 상장
- 로보티즈, 올해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공개. 에스피지도 SDD 26년부터 양산. 제품 라인업 강화 지속
- 미국 스킨 AI, 반년만에 기업가치 3배 증가한 20조원 산정. 로봇 관심은 지속

[방산] 폴란드 1차가 끝난 후

- UAE 행정청장 방문. 연내 UAE 대통령 방한 맞춰 방산 성과 도출 기대
- KF-21 시험 비행 무사고로 마무리. 양산 본격화
- 그린란드 둘러싼 미국-유럽 긴장감 계속. 러-우 휴전은 뒷전으로

[조선] HD현대중공업의 신년 간담회 Key Takeaways

- 연초 조선 수주 랠리. 현대중 컨선, 현대상호 VLGC, 한화오션 VLCC 등
- 삼성중 FLNG 기대감 지속. 미국 델핀 FLNG 건조 FID 가시권. 코알 노르트 FLNG는 진수식
- 미국 필리조선소에 8백만달러 지원. 황금함대 스펙 세부도 공개

[항공] 방산을 강조하는 대한항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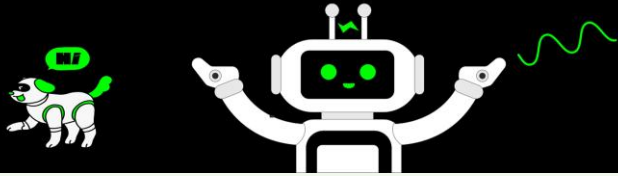
-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한 집 살림 시작. 아시아나 T2 이동 완료
- 2025년 보잉의 항공기 신조 인도 7년만에 최고, 신규 주문도 8년만에 에어버스 추월
- 다가오는 중국 항공 연휴. 일본 항공편 축소에 한국 반사 수혜 기대감 지속

[해운] HMM 인수 난항

- 美, 이란 긴장 고조로 이란 외항에 수십억척 상선 정박 대기
- Maersk, 중동-인도 항로(MECL) 서비스 확대 항로 본격 복귀결정
- VLCC 스팟 용선 시장 회복, 중동-대서양 수급 타이트해져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



Weekly Keyword

보스턴다이나믹스의 IPO 기대감

CES 이후, 보스턴다이나믹스 IPO 기대감까지 확산. 글로벌 피어 기업인 피규어 시의 기업가치가 39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, 이 보다 높은 기업가치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.

로봇/기계/운송/조선 양승윤

02) 368-6139_syyang0901@eugenefn.com



What's new? - 로봇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111)

[보스턴다이나믹스의 IPO 기대감]

- CES 이후, 현대차에서 보스턴다이나믹스 IPO 가능성이 거론되고, 실제로 보스턴다이나믹스가 IR 수장을 영업하면서 기대감 고조되는 중.
-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율은 약 88%으로 파악됨. HMG 글로벌 54.7%(현대차 49.5%, 기아 30.5%, 현대모비스 20%), 현대글로벌비스 11.5%, 정의선 회장 21.9%).
- 보스턴다이나믹스가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선행 중. 상기 지분율과 지난 주 현대차 그룹의 기업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시장은 보스턴다이나믹스에 대해 약 50조원의 기업가치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- 글로벌 피어 중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Figure.AI가 9월 시리즈 C 펀딩을 390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평가받은 사례가 기준점.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기술력과 향후 현대차와의 양산 시너지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.

Key Chart: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지분율 현황

기업명	BD 지분율	HMG글로벌 지분율	
HMG 글로벌	54.72%	현대차	49.5%
		기아차	30.5%
		현대모비스	20.0%
정의선 회장	21.89%	-	-
현대글로벌비스	10.94%	-	-
소프트뱅크	12.45%	-	-

자료: 언론보도, 유진투자증권

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



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



자료: Quantiverse

로봇 주요 뉴스(01/12~01/18)

[전통 로봇(산업용/서비스)]

- 현대위아 "28년 로봇 매출 4,000억" 로봇 사업 집중 육성
- HD건설기계, 현대로보와 공정 자동화·스마트팩토리 협력
- 케이엔알시스템, 28억원 규모 원전해체 로봇 수주
- 포스코그룹, 日 야스카와와 산업용 로봇 공급 협력
- 삼성물산, 요기요와 단지내 배송 로봇 확장 운영

[휴머노이드]

- 로보티즈,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다시 만든다
- 위로보틱스, 엔비디아메타와 휴머노이드 협력 논의

[부품/SW/기타]

- 현대차 "보스턴다이나믹스 IPO, 적절한 시점 진행"
- 현대차, 테슬라 로봇 총괄한 '머스크 오른팔' 영입
- HD현대로보틱스 상장 주관사에 UBS·한투·KB證
- 에스피지, SDD 상반기 양산. 연 5천대 판매 목표
- 삼성자산운용, 뉴로메카 지분 10% 확보. "단순 투자"
- 엔비알모션, 스팩 상장. 로봇 고정밀 베어링 시장 확장
- LG이노텍, 아틀라스 '비전 센서'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
- KH바텍, 레인보우로보 협동로봇 외장케이스 부품 수주
- 서진시스템, 제닉스로보틱스와 로봇 파운드리 협력
- 클로봇, 보스턴 다이나믹스 스팟 로봇 'SI 인증' 획득

[Global]

-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, 올해 10만대 양산 본격화
- 스킨드AI, 7개월 만에 기업가치 20조원으로 3배 급등
- 美 A3, 산업용 로봇 국가안전표준 업데이트 발표
- 1X의 휴머노이드 '네오', 영상 학습으로 스스로 기술 습득



Weekly Keyword

폴란드 1차가 끝난 후

K-2 및 K-9 폴란드 1차 물량 종료 이후 기업들의 현황이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짐. 현대로템은 선생산으로 2차 물량 생산 가속. 한화에어로는 이집트 K-9으로 공백 상쇄 노력 중.

로봇/기계/운송/조선 양승윤

02) 368-6139_syyang0901@eugenefn.com



What's new? - 방산 산업 주요 이슈 & 스테디(59)

[폴란드 1차가 끝난 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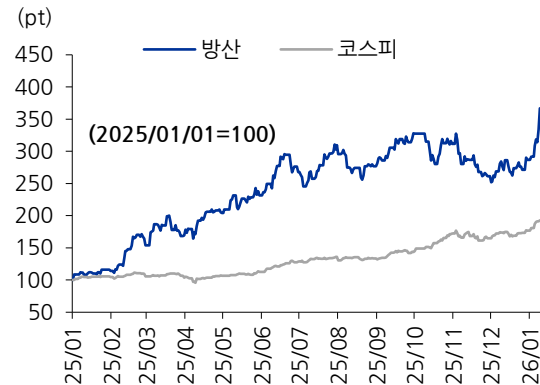
- 폴란드 방산 매체 Defense 24가 한국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현대로템 공장 방문(2025년 12월)한 내용을 보도. 동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가지 힌트를 정리.
- 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K9 1차 사업 종료 후 아직 2차 사업 제작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 이 공백을 이집트 물량으로 상쇄하는 중. 2026년은 이집트 사업의 실적이 중요.
- ② 현대로템은 현재 폴란드 2차 GF 생산을 40~50대 가량 진행 중. 작년 8월에 수주하고 불과 5개월만에 빠른 진척. 선생산 투입 효과. 2026년 GF 인도 예상 대수는 30대 수준이었으나, 상향 조정될 여지.
- 폴란드 1차 사업 종료와 함께 2차 사업 돌입. 사업과 사업 사이의 공백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타 국가 사업으로, 현대로템은 선생산 투입 통한 조기 제작으로 메꾸는 모습.

Key Chart: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-9 제작 현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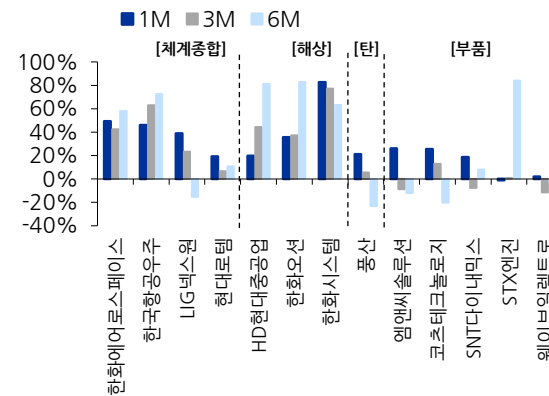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디펜스 24, 유진투자증권

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



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



자료: Quantwise

방산 주요 뉴스(01/12~01/18)

[수주/계약]

- 방사청장, "페루 전차-장갑차 이행계약 체결 희망"
- 모로코, 韓 'K2 흑표' 400대 '천궁' 도입 저울질
- KAI 이라크 소방헬기 2대를 추가 공급 추진
- 한화KAI, 초소형 위성사업 상반기 판가름

[기업별 이슈]

- KAI, 최대 5,000억 회사채 발행 추진
- KF-21 시험비행 '42개월 無사고' 대기록
- 현대로템, 로봇사업·소수사업 체계 개편
- 현대로템, 풍산 등 64곳에 선금금 4,888억 지급

[기타]

- 李대통령,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. 방산 후속 논의
- 방사청장 "해병대 K2 전차 소요 신속 검증"
- 삼양컴텍, 구미 3공장 부지 용도 변경. "생산력 확대"
- KF-21 양산 예산 7,000억 '증발'. 공군 전력 재편에 '비상'

[글로벌]

- 덴마크, 나토 동맹국과 협력해 그린란드 병력 증강
- 트럼프, 이란 군사개입 경고 속 항모전단 중동 배치
- 美 '그린란드 야욕'에 EU 국방수장 "유럽군 만들자"
- 트럼프 "그린란드 문제 협조않는 나라에 관세 부과"
- 다보스 만남 전 마우크라 '빠져' 안전보장안 '표류'
- 美 "동맹국 국방지출 증액 독려. 美 방산 접근성 확대"
- EU 무기공구 1차 지원대상에 루마니아 등 8개국
- 이스라엘, 국영 방산기업 '이스라라엘' 민영화 착수
- "방산 수출 확대" 일, 필리핀과 군수지원 협정 체결



Weekly Keyword

HD현대중 신년 간담회 KEY TAKEAWAYS

HD현대중공업의 간담회 개최. 상선은 평이. 특수선과 해양 수주 증가 전망. 특수선 목표 30억불 제시. 쇄빙선도 계획 포함. 미국 군함은 H&A 협력 지속. 모듈 공급부터 현지 투자까지 다각도 검토.

로봇/기계/운송/조선 양승윤

02) 368-6139_syyang0901@eugenefn.com



What's new? - 조선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39)

[HD현대중 신년 간담회 Key Takeaways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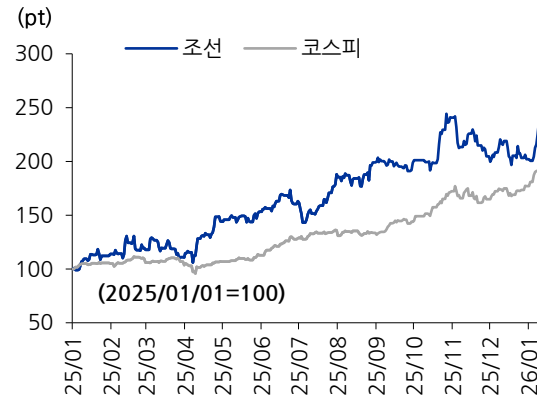
- **상선:** 글로벌 발주 전년 수준 기대. 2026년은 LNGC 발주 증가 전망.
- **특수선/해양:** 2026년 수주 목표 30억불 제시. 필리핀과 페루 외 전세계 파이프라인 대응. 쇄빙성도 포함(수척 인콰이어리 수형 중). 해양도 2026년 수주 목표 33억불 제시. 작년으로부터 이연된 물량 포함
- **미국 군함:** H&A 협력 계속. 미국 호위함 건조 관련 1st 야드는 H&A, 동사 건조 능력 고려해 2nd 야드 추가 가능성. 모듈 공급~현지 직접 투자 등 다각도로 검토. 존스법 등 법 개정 시기는 불확실.

Key Chart: HD한국조선해양 2026년 수주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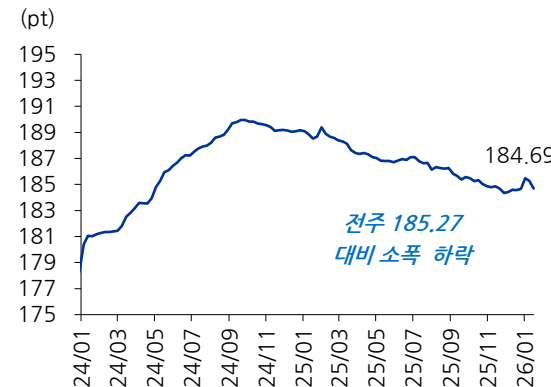
구분	25년(추정)	26년(계획)	증감률
HD 현대중공업	12,678	20,420	61.1%
조선	9,129	14,486	58.7%
상선	8,047	11,470	42.5%
함정	1,082	3,016	178.7%
해양	133	3,259	2350.4%
엔진기계	3,416	2,675	-21.7%
HD 현대삼호	6,928	5,048	-27.1%
조선	6,668	4,900	-26.5%
산업설비	260	148	-43.1%
HD 한국조선해양	861	1,365	58.5%
조선	219	660	201.4%
기자재	642	705	9.8%
(구) HD 현대미포	2,367	-	-
합계	22,834	26,833	17.5%

자료: HD한국조선해양, 유진투자증권

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



신조선가 추이



자료: Quantwise, Clarksons

조선 주요 뉴스(01/12~01/18)

[상선/해양]

- HD현대중, PIL로부터 1만 3000TEU급 4척 수주
- Asyad Shipping, 한화오션에 4억불 규모 VLCC 3척 발주
- HD현대삼호, 터키 아이가즈로부터 VLGC 수주
- 대한조선, 수에즈막스 탱커 이틀 연속 수주. 총 4척
- 삼성중, 4조 규모 美 델핀 FLNG 건조 FID '가시권'
- 삼성중, 거제서 '코랄 노르트 FLNG' 진수식 개최
- HD현대-한화오션, 카타르 해상유전 확장 입찰 참여

[특수선]

- 크로아티아, 초계함 2척두고 HD현대중-TKMS-나발 경쟁
- 한화, 加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. 잠수함 수주 지원
- HD현대중공업 필리핀 호위함 협력 확대 논의
- 잠수함 납품지연 한화오션 2심 일부승소 227억 환입 기대
- HD현대중공업, 필리핀 첫 OPV 인도 나서
- 안규백 국방장관 "30년 KDDX 전력화 차질 없다"
- HJ중공업, 美 해군 함정 MRO 본격 착수

[기타]

- HD현대중,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권 입찰 우위 선점
- 美, 필리핀조선에 800만 달러 지원. '전략적 파트너' 공식화

[글로벌]

- 미 해군, 조선소 인력 '25만 명' 대거 수혈 계획
- 美정부, 선박 건조 지연에도 이익률 10% 보장
- 트럼프급 전함 스펙 윤곽. 핵순항 미사일 등 탑재
- VLCC 운임, 하루 10만 달러 '돌파'
- Maersk, 2년 만에 수에즈 운하 정기서비스 재개



Weekly Keyword

방산을 강조하는 대한항공

4Q25 대한항공 실적에서 항공우주 부문이 눈부신 성과. 전년비 매출 2배 성장. 25년 블랙호크, 항공통제기, 전자전기 수주/우협 선정 성과. 26년도 방산 기대감 지속. 무인기 시범 비행 등 주목.

로봇/기계/운송/조선 양승윤

02) 368-6139_syyang0901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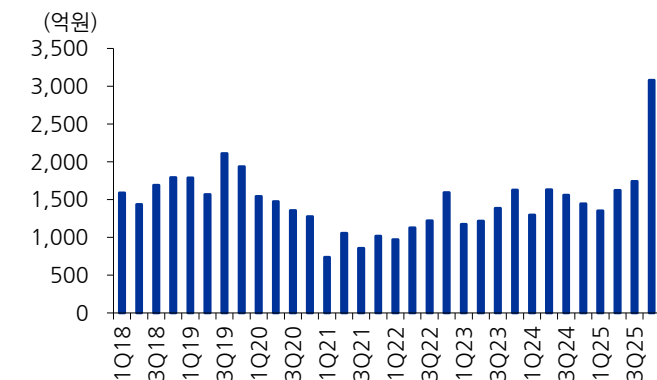


What's new? - 항공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59)

[방산을 강조하는 대한항공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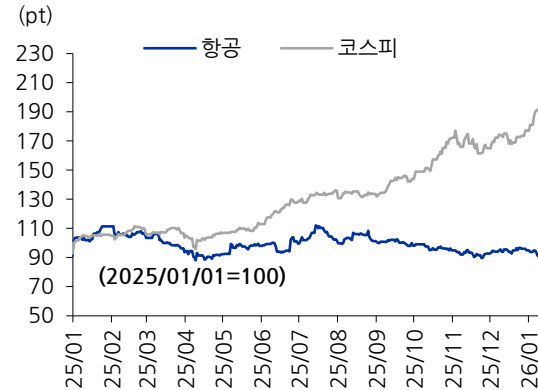
- 대한항공의 4Q25 실적 발표에서 항공우주 부문 성과를 강조. 동사는 2025년 ① 블랙호크 개량: 8월 수주(8,300억원) ② 항공통제기: 11월 L3Harris 컨소시엄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조기 착수(6,300억원), ③ 전자전기: 12월 LG넥스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둠. 4Q25 항공우주 부문 실적도 전년비 100% 성장. 2026년에도 수주잔고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이드.
- 아직 별도 매출액에서 항공우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.8% 수준에 그치나, 향후 본격화될 각종 무인기 개발 및 양산 사업에서의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. 지난해 2,200억원 투자해 무인기 공장 증설 결정하고, 올해 1분기 중 저피탐 무인편대기 시범 비행을 예정 중.

Key Chart: 대한항공 항공우주 부문 매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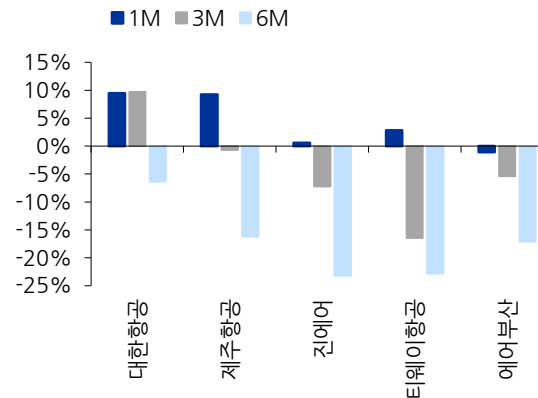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



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



자료: Quantwise

항공 주요 뉴스(01/12~01/18)

[여객/화물]

- 中 황금연휴에 日 항공편 무더기 취소, 韓 인기 기대
- 대한항공 7~8월 휴가철 미국 편도 항공권 비싸진다
- 제주항공 작년 日노선 탑승객 역대 최대 402만명

[기업별 이슈]

- 대한항공 4Q25 영업이익 4,131억원. 전년비 5% 감소
- 대한항공-아시아나 2터미널 한집살림 시작
- 대한항공, 인천T2 프레ستی지 동편 좌측 라운지 리뉴얼
- 아시아나항공 T1 라운지 두 곳, 올해 문 닫는다
- 소노-티웨이 화학적 결합. 올 상반기 통합 인사옥 이전
- 섬에어 연내 3호기 갖춰 국제선까지 취항 목표

[글로벌]

- 대만 워싱턴 하늘길 정치적 장벽 깨고 7월 첫 직항
- 보잉, 트럼프 덕에 8년만에 신규 주문 에어버스 추월
- 보잉, 항공기 인도량 7년 만에 최고
- 중국 춘제 앞두고 트립닷컴 반독점 조사 착수



Weekly Keyword

이란 시위, 홍해 항로 정상화 영향

이란과 미국간 긴장이 고조되며 홍해 항로 정상화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상존. 글로벌 정기선사들의 홍해 복귀 움직임을 고려할 때 수에즈 경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진 국면으로 판단.

로봇/기계/운송/조선 양승윤
02) 368-6139_syyang0901@eugenefn.com

RA 임범수
02) 368-6168_beomsu@eugenefn.com



What's new? - 해운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2)

[이란 시위, 홍해 항로 정상화 영향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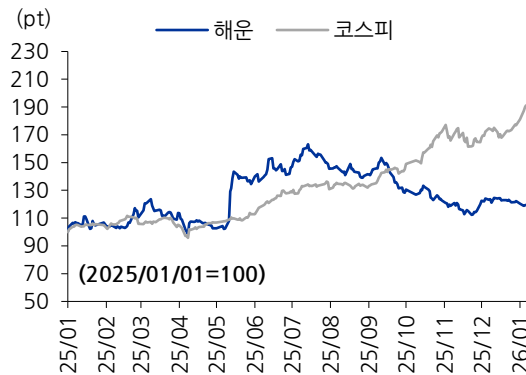
- 이란 소요사태로 미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중.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홍해 항로 정상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상존. 이란이 극단적으로 봉쇄를 결정할 경우 아시아-서방 환적허브에 일시적 혼잡이 발생할 리스크 존재.
- 그러나 글로벌 정기선사들의 복귀 움직임과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고려할때, 수에즈 경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진 국면으로 판단. 올해 CMA-CGM이 홍해 항로에 본격적으로 복귀한데 이어, 1/15 Maersk가 중동-인도항로(MECL) 서비스의 홍해 항로 구조적 변경을 발표. Maersk의 파트너 선사인 Hapag-Lloyd 또한 인도-중동-지중해 항로 서비스의 홍해 복귀를 고려 중.
- 이란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수에즈 경로를 이용한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. 글로벌 대형 컨테이너선사들의 복귀 움직임에 주목할 시점.

Key Chart: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Maersk 컨테이너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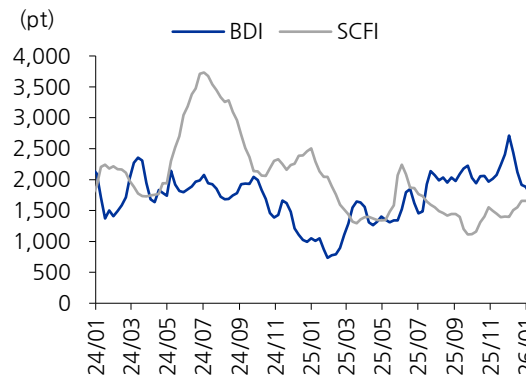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SCA, 유진투자증권

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



해상운임 추이



자료: Quantwise, Clarksons

해운 주요 뉴스(01/12~01/18)

[벌크선]

- Genco, Diana의 인수제안 거부
- 中, 美 대두 수입 재개로 건화물선 시장 뜻밖 호재

[탱커/가스선]

- Frontline, 노후 VLCC 8척 매각, 신조선 9척 인수
- 美-이란 긴장 고조로 이란 외항에 수습척 경박
- 美, 유조선 수습척 나포위해 법원에 영장신청
- 장금상선, VLCC 최대 30척 확보 추진
- VLCC 스팟 용선 시장 회복, 중동-대서양 수급 타이트해져

[컨테이너선]

- 수에즈 운하 항로 재개 컨테이너선 크게 증가
- HMM, 친환경 운항설비 wingseal 국내 최초 도입
- HMM, 북유럽항로에 '허브앤스포크' 전략 도입
- MSC, 중고 컨테이너선 잇따라 도입
- Maersk, MECL 서비스 홍해 항로 본격 복귀결정
- OOCL, 적재량 증가에도 운임 하락으로 25년 매출 감소
- Hapag-Lloyd, 플로리다 CT 주식 100% 취득
- 장금상선, MSC와 컨테이너선 최대 30척 매각 협상
- 中 VAT 환급 철회 여파로 운임인상 무력화

[기타]

- 이란, 미국의 공격시 상선과 해양시설 공격 경고
- TT클럽, 탄소배출량 감축 위해서는 OPS 도입 시급